

# CEO Report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2015. 6

동향분석실

**CEO Report** 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CONTENTS

I. 경제·금융시장 .....	1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11
3. 국내금융시장 .....	24
II. 보험시장 .....	30
1. 주요 지표 .....	30
2. 생명보험 .....	33
3. 손해보험 .....	44



# I. 경제·금융시장

## 1. 세계경제

- 2014년 세계경제는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인 3.4% 성장하며, 2010년 이후 지속된 성장률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신흥국은 성장률이 하락하였고, 선진국은 상승하였음.
  - 2014년 선진국 경제는 2013년보다 0.4%p 상승한 1.8% 성장하였으나, 신흥국의 경우 0.4%p 하락한 4.6% 성장에 그침.
    - 2014년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우 2013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2%p, 1.2%p 상승하였으나, 일본과 중국은 각각 1.7%p, 0.3%p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은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둔화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
  - 1/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민간소비,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2014년 4/4분기보다 2.9%p 하락한 -0.7%(연율화)를 기록함.
    - 일시적인 한파의 영향 및 서부 항만 파업을 비롯하여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소비, 에너지 관련 투자 및 수출이 감소함.
  - 유로지역의 경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5%(연율화)를 기록함.
    - 저유가 지속과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민간소비를 비롯하여 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며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함.

- 1/4분기 일본경제는 기업 수익성 및 고용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확대 등으로 전기대비 3.9%(연율화) 성장함.
  -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5→8%)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 가운데,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증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됨.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sup>1)</sup>	0.0	5.4	4.2	3.4	3.4	-	-	-	-	3.4	-
선진국 <sup>1)</sup>	-3.4	3.1	1.7	1.2	1.4	1.3		2.2		1.8	2.3
신흥국 <sup>1)</sup>	3.1	7.4	6.2	5.2	5.0	4.6		4.7		4.6	4.1
미국 <sup>2)</sup>	-2.8	2.5	1.6	2.3	2.2	-2.1	4.6	5.0	2.2	2.4	-0.7
유로 <sup>3)</sup>	-4.5	2.0	1.6	-0.8	-0.4	0.9	0.4	0.7	1.4	0.8	1.5
일본 <sup>4)</sup>	-5.5	4.7	-0.5	1.8	1.6	4.4	-6.8	-2.0	1.2	-0.1	3.9
중국 <sup>5)</sup>	9.2	10.4	9.3	7.8	7.7	1.6	2.0	1.9	1.5	7.4	1.3

주: 1) 분기 경제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 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 유로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5.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5).

3) Eurostat(2015. 6).

4) 일본 내각부(20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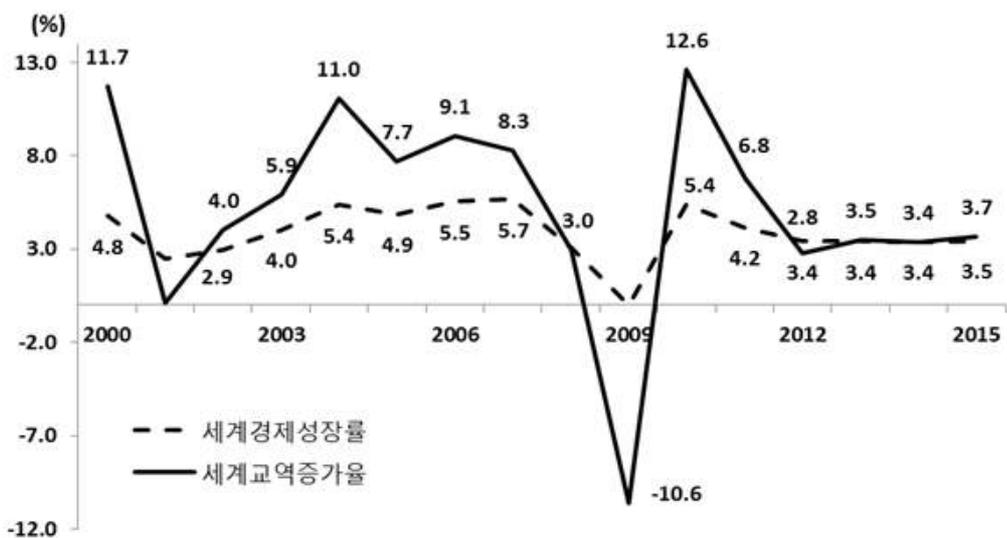
5) 중국 국가통계국(2015. 4).

- 1/4분기 중국경제는 생산 및 수출 둔화와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전기보다 0.2%p 하락한 1.3% 성장률을 기록함.
  - 제조업과 광업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수요 부진과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인한 노동집약제품<sup>1)</sup> 부진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함.

■ 한편, 세계 교역량은 2012년 큰 폭으로 둔화된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3.4% 늘어나는데 그침.

-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 부진으로 세계교역량이 둔화되고 있음.<sup>2)</sup>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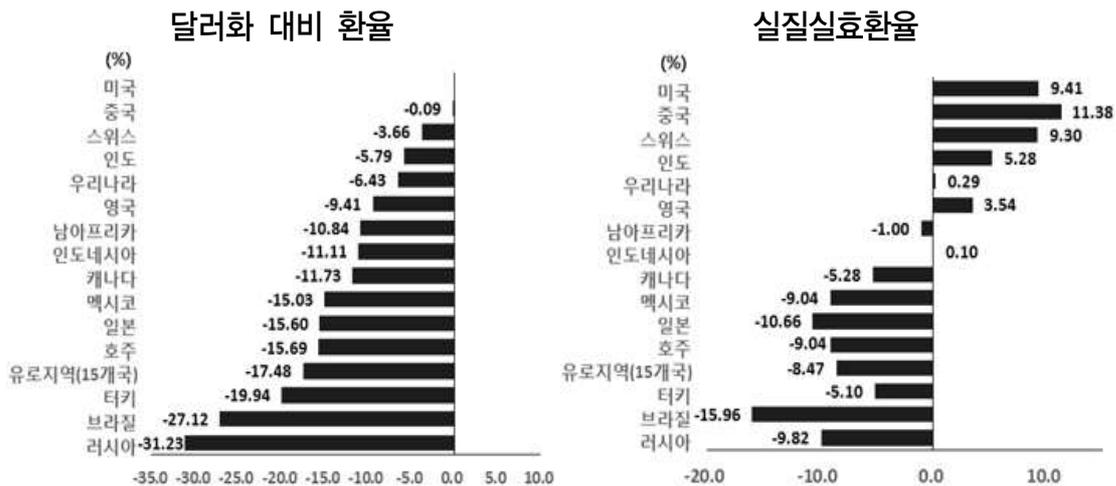


자료: IMF.

1) 의복, 신발 등과 같은 노동의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뜻함.  
 2)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선진국 소득불평등 확대, 국제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선진국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등으로 선진국 수입수요가 위축되고, 국제 생산연관관계(global value chain) 약화, 중국 수입 대체전략 강화 등으로 중간재 무역이 약화되면서 세계교역량이 위축됨.

- 2014년 국제유가는 공급 확대 및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유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9월 이후 45%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됨.
  - OPEC 국가를 비롯하여 비 OPEC 국가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
- 2014년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가 하락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
  - 미국 연준은 양적완화를 축소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양적완화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됨.
  - 실질실효환율의 경우 중국, 스위스, 인도,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임.

그림 1-2 국가별 달러화 대비 통화 절하 추이(2014년 6월 ~ 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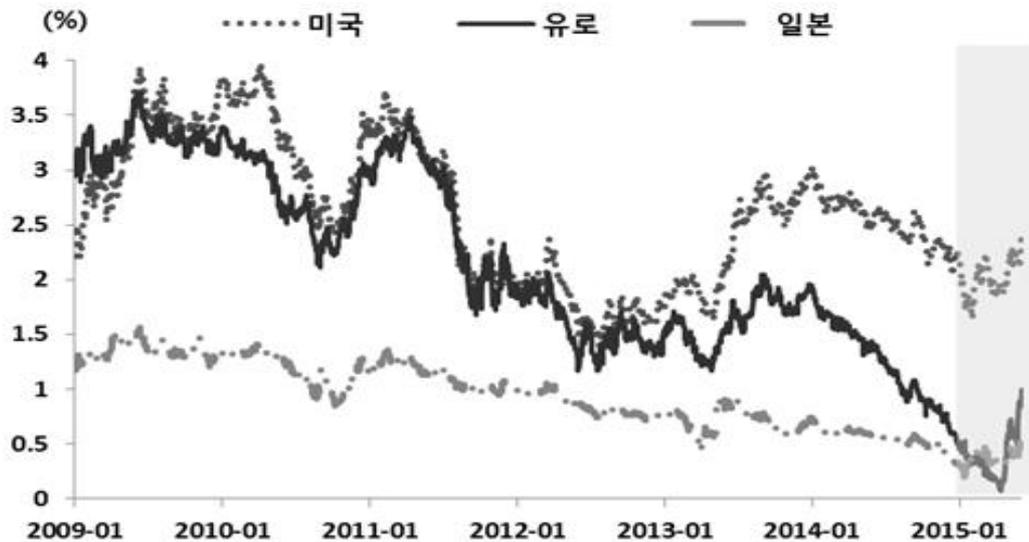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97 database; Datastream.

- 미국 국채 금리는 양적완화정책(QE) 종료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로지역 및 일본의 국채 금리도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2015년 9월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음.

그림 I-3 미국, 유로, 일본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2015년 1/4분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였지만, IMF는 2015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재정 긴축기조 완화정책, 저유가 지속 등으로 2014년보다 0.1%p 높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4월에 발표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4년 10월 IMF 전망치 대비 0.3%p 하향 조정됨.
    -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된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됨.
  - IMF는 미국이 2015년 선진국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유로지역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의 경우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2/4분기부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5년 2.0~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경제는 실업률 감소 및 임금인상, 소비자신뢰지수 개선 등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며 2014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저유가, 부동산 시장 개선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전망이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함.
- 유로지역은 저유가 및 저금리 지속, 유로화 절하 등에 따른 수출 및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2015년 1.1~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독일(1.6%), 프랑스(1.2%), 이탈리아(0.5%), 스페인(2.5%) 등 주요 유로지역 국가들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일본경제의 경우 저유가 지속을 비롯하여 엔화 약세 및 실질임금 상승,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2015년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완전고용 상태<sup>3)</sup> 및 1배 이상의 유효구인배율 등 고용환경 개선,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 2014년 대비 물가상승폭 축소 등으로 2015년 실질임금이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 엔화 약세 및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으로 기업 수익 및 투자가 증가하여 2015년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3) 3% 중반대 실업률.

표 I-2 전망기관별 2015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독일	중국
IMF	2014.10	3.8	2.3	5.0	3.1	1.3	0.8	1.5	7.1
	2015.4	3.5	2.4	4.3	3.1	1.5	1.0	1.6	6.8
OECD	2014.11	3.7	-	-	3.1	1.1	0.8	1.1	7.1
	2015.5	3.1	-	-	2.0	1.4	0.7	1.6	6.8
EU	2014.11	3.8	-	-	3.1	1.1	1.0	1.1	7.1
	2015.5	3.5	-	-	3.1	1.5	1.1	1.9	7.0
World Bank <sup>1)</sup>	2014.6	3.4	2.4	5.4	3.0	1.8	1.3	-	7.5
	2015.6	2.8	2.0	4.4	2.7	1.5	1.1	-	7.1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OECD Economic Outlook;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중국의 경우 투자에서 소비로의 경제구조 변화 및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2015년 6.8~7.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구조개혁에 따른 시행착오, 지속적인 투자 둔화, 재고 소진, 기저효과 등으로 2015년 2/4분기 성장률은 1/4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신흥국의 수출 증가로 2015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sup>4)</sup>

●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7%로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선진국은 2014년 3.3%에서 2015년 3.2%로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신흥국은 2014년 3.4%에서 2015년 5.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선진국은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신흥국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5%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OECD와 World Bank는 최근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1%와 2.8%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2015년 세계경제 전망의 경우 하방 위험요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상방 위험요인으로는 낮은 조달금리, 각국 구조개혁 등에 따른 투자 확대, 고용시장 회복과 저유가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이 있음.

● 한편, 하방 위험요인으로는 급격한 유가 상승 가능성, 미국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중국 투자 둔화 및 경착륙 우려, 지정학적 위험, 선진국의 저물가 및 디플레이션 장기화, Grexit 우려 등이 있음.

■ 2015년 국제유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원유 재고량 증가로 하향 안정화되었다가 미국 셰일오일 생산 감소 및 수요 증가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 미국 원유생산이 감소하고 계절적 성수기 도래로 수요도 확대되면서 과잉

4) IMF(2015. 4), World Economic Outlook.

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2015년 3/4분기 이후 완화될 전망이다.

- IMF는 2015년 평균유가를 58.1 달러/배럴로, 2016년은 65.7 달러/배럴로 예상함.<sup>5)</sup>
- 2015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선진국 통화에 비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이 역전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등 취약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정책금리는 2015년 9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며,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현행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환율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도매재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 연준 연내 금리 인상 우려, 그리스 채무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연준 연내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반면, 일본은행 양적완화 지속이 예상되는 등 양국 금리 차 확대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sup>6)</sup>

5) IMF(2015. 4), World Economic Outlook.

6) 주요 민간 10개 기관이 전망한 2015년 엔/달러 환율은 평균 126엔이며, 최고 132엔(미쯔이스미 토모은행), 최저 123엔(미쯔비시 UFJ모건스탠리증권)으로 전망됨.

표 I-3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달러/유로	1.37	1.26	1.22	1.22	1.07	1.07	1.06	1.05	1.05
엔/달러	101	110	119	119	120	122	125	125	125
위안/달러	6.20	6.14	6.21	6.21	6.20	6.20	6.20	6.19	6.19

주: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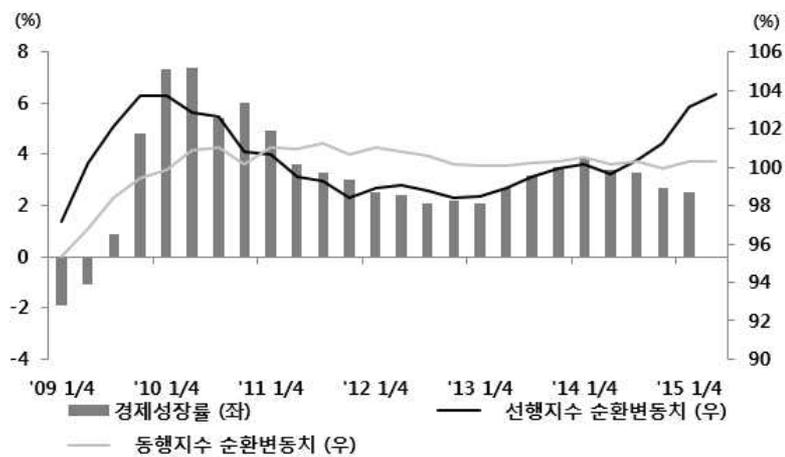
(이아름 연구원)

## 2. 국내경제

〈성장〉

-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이전의 회복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국내경제는 2014년 3.3%(2013년 2.9%) 성장하였는데, 성장률은 1/4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기 2.7%로 낮아졌음.
  - 2015년 1/4분기에도 국내경제는 2.5% 성장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및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기준치(10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등 성장 모멘텀이 크지 않음.

그림 I-4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개선세가 정체되어 있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2014년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부담 및 노후대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이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sup>7)</sup> 등으로 전년대비 0.1%p 낮은 1.8% 증가하는데 그침.<sup>8)</sup>
  -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는 1.5% 늘어났는데, 이는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소비심리 둔화가 지속<sup>9)</sup>된 가운데 1월 담배값 인상,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했기 때문임.
- 2014년 건설투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마무리, 세수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부진 등으로 토목건설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5%p 하락한 1.0% 증가하는데 그침.
  - 2015년 1/4분기 건설투자는 0.6% 늘어났는데, 이는 민간주택 분양 호조, 연초 효과 등에도 토목건설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임.
- 설비투자의 경우 과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 확대,<sup>10)</sup>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강화<sup>11)</sup> 등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2014년 5.8% 증가함.
  - 2015년 1/4분기에도 설비투자는 5.8% 늘어나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가계 평균소비성향(%): 2012년 74.1% → 2013년 73.4% → 2014년 72.9%

8) 그러나 자동차 판매(2013년 2.1% → 2014년 16.6%)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 소비(내구재 판매 증가율: 2013년 0.3% → 2014년 5.1%)는 회복세를 보였음.

9) 소비심리 지수(CSI, 분기 중 평균): 2014년 1/4분기 108.3 → 2/4분기 106.3 → 3/4분기 106.0 → 4/4분기 103.0 → 2015년 1/4분기 102.0

10) 2014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은 3조 8,43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2% 증가하였음(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3. 9. 30),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9,821억 원 편성”).

11) 2013년 12월 7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사업장의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조세·보조금·입자·인력 등을 지원하고 동반복귀기업과 주변 대학 및 연구소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함.

- 2014년 지식생산물투자는 민간 R&D 투자를 중심으로 4.6% 증가하였음.
  - 그러나 IT 제조업체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2015년 1/4분기 지식생산물 투자는 1.7% 늘어나는 등 저조한 모습임.
- 2014년 재화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sup>12)</sup>로 전년대비 2.2%p 하락한 2.3% 증가하는데 그침.
  - 2015년 1/4분기 재화수출은 엔저 영향의 본격화, 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0.9% 감소하였음.

**표 I-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9	3.9	3.4	3.3	2.7	3.3	2.5
-민간소비	1.9	2.6	1.7	1.5	1.4	1.8	1.5
-설비투자	-0.8	7.2	7.7	4.2	4.2	5.8	5.8
-건설투자	5.5	4.1	0.2	2.3	-1.4	1.0	0.6
-지식생산물투자	4.4	7.2	5.7	4.9	1.1	4.6	1.7
-재화수출	4.5	3.8	3.6	1.6	0.5	2.3	-0.9
-재화수입	1.3	3.1	1.3	1.4	-0.7	1.2	0.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5년 국내경제는 건설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어 2014년 대비 0.6%p 하락한 2.7% 성장할 전망이다.
  - 당초 기대되었던 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국내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12) 對중국 수출(통관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2013년 8.6% → 2014년 -0.4% → 2015년 1~4월 -2.5%

- 유가 하락 및 금리인하 효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에 메르스 감염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감염이 확산될 경우 성장률 둔화가 심화될 수 있음.<sup>13)</sup>

표 I-5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F) <sup>1)</sup>	
				기존전망	수정전망
실질GDP 성장률	2.3	2.9	3.3	3.7	2.7
(명목GDP)	3.4	3.8	3.9	4.5	3.8
민간소비	1.9	1.9	1.8	2.7	1.9
설비투자	0.1	-0.8	5.8	5.7	4.5
건설투자	-3.9	5.5	1.0	2.9	3.0
지식생산물투자	8.6	4.4	4.6	6.3	4.7
재화수출	4.4	4.5	2.3	6.0	1.7
재화수입	1.9	1.3	1.2	6.5	2.1
실업률	3.2	3.1	3.5	3.3	3.5
(고용률)	59.4	59.5	60.1	60.6	60.6
소비자물가	2.2	1.3	1.6	2.0	0.9
경상수지(억 달러)	508.4	811.5	892.2	660.0	980.0
상품수지(억 달러)	494.1	827.8	926.9	778.0	1,050.0
상품수출(억 달러)	6,035.1	6,181.6	6,213.0	6,635.2	5,700.0
(증가율)	2.8	(2.4)	(0.5)	(4.0)	(-8.3)
상품수입(억 달러)	5,541.0	5,353.8	5,286.1	5,857.6	4,650.0
(증가율)	(-0.7)	(-3.4)	(-1.3)	(6.0)	(-12.0)

주: 1) 2015(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3)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병 당시 2003년 홍콩 경제 성장률은 1/4분기 4.1%에서 2/4분기 -0.9%로 하락하였으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병 당시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09년 1/4분기 10.8%에서 2/4분기 7.9%로 하락하였음. 한편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1달 내 메르스 감염이 진정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0.15%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출항목별로 전망하면 2015년 민간소비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교역조건 개선으로 높아졌으나, 소비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sup>14)</sup> 2014년 1.8%에 비해 0.1%p 상승한 1.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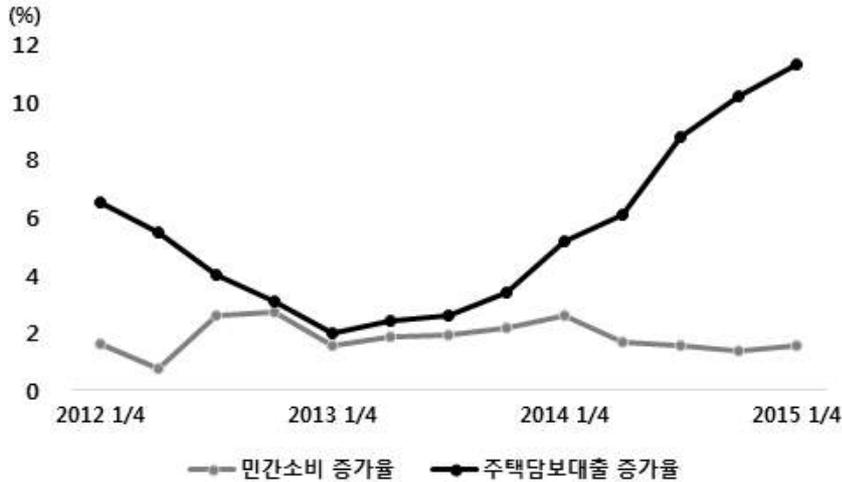
-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수입물가 하락 및 교역조건 개선, 소비경기 선행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자산시장 안정 등 환경적으로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중·장년층 및 여성 중심,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세와 가계부채 누증 및 노후대비 부담 등은 민간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 2014년 8월 주택 대출 규제 완화<sup>15)</sup>와 기준금리 인하<sup>16)</sup>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간의 관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본격적으로 제약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14) 2015년 4월과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104.0, 105.0을 나타내 2014년 4/4분기와 2015년 1/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2014년 5월 1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15) 2014년 7월 정부는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LTV 및 DTI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70% 및 6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2014년 8월부터 시행하였음. 이번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음. 정부는 또한 규제 완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이 효과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6) 한국은행은 2014년 8월과 10월,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5년 3월과 6월에도 25bp 인하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6월 현재 기준금리는 1.50%임.

그림 I-5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가계동향』.

■ 2015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른 재건축 및 신규 주택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3.0% 늘어날 전망이다.

- 2014년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 대한 기저효과와 선행지표인 민간부문 주택건설 수주 증가세,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최근 주택경기 개선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건축 수요 확대도 건설수주의 개선 요인임.
-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택 매수 심리 호전과 이에 따른 미분양주택 물량 감소,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등도 건설투자 회복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5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및 정부의 R&D 예산액 확대 및 SW지원정책 강화 등으로 4.7% 성장할 전망이다.

- 정부의 R&D 예산<sup>17)</sup>이 확대된 가운데, 창업 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연구소 증가 추세 등으로 R&D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5년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4.5%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sup>18)</sup>과 유가 및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투자비용이 감소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sup>19)</sup>
- 그러나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에 따른 재고율 증가와 제조업 전반의 유휴 설비 증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이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음.

그림 I-6 설비투자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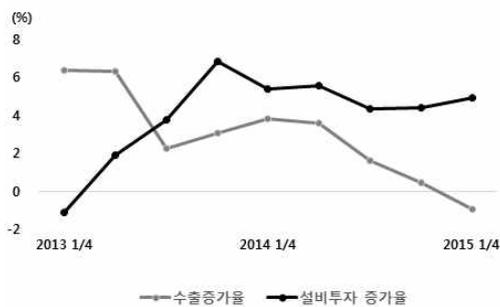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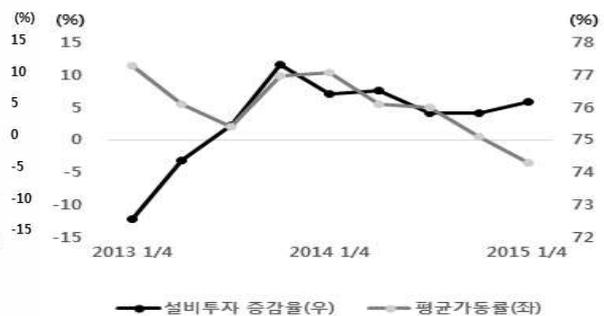


그림 I-7 설비투자와 제조업 평균가동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17) R&D 예산규모(조 원): 2011년 14.9 → 2012년 16.0 → 2013년 17.1 → 2014년 17.8 → 2015년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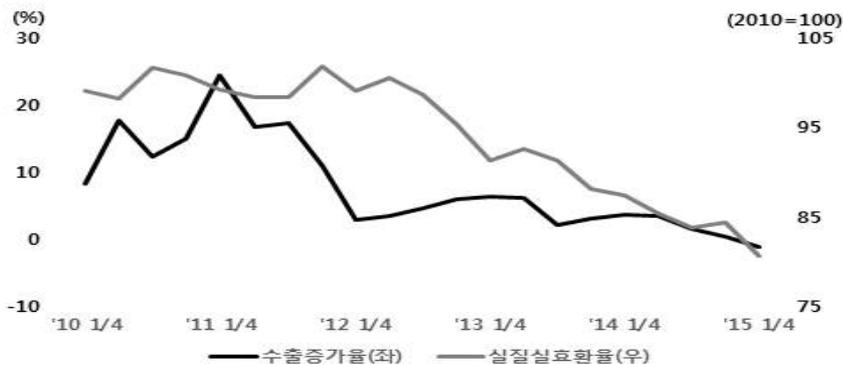
18) 기획재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6.8조 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 원),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5조 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확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6.9조 원), 민간투자산업 활성화 방안(7조 원) 등의 투자 활성화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을 1~4월에 걸쳐 발표하였음.

19)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3)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2015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금액은 2014년 실적 117조 1,000억 원보다 16.5% 증가한 136조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5년 재화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이에 따라 세계 교역량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대비 0.6%p 하락한 1.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IMF, OECD, World bank<sup>20)</sup>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14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對중국 수출은 2015년에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원화가 약세이나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2014년 이후 3.5% 절하되었으나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7.1% 절상되었음.

그림 I-8 실질실효환율과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BIS; 한국은행, 「국민계정」.

- 재화수입의 경우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로 0.9%p 상승한 2.1% 증가할 전망이다.

20)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IMF(2015. 4): 3.8% → 3.5% / OECD(2015. 6): 3.7% → 3.1% / World Bank(2015. 6): 3.4% → 2.8%

## 〈고용〉

■ 2014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시행과 장년층 인구 증가 및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 증가세도 확대되는 등 고용 시장이 개선되었음.

- 2014년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3년보다 0.5%p 상승한 2.1%,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60.2%를 기록함.
  - 다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 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0.4%p 상승한 3.5%를 나타냄.
  - 또한 취업자 수는 늘어났으나 명목임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가계소득 개선은 소폭에 그치고 있음.
- 2015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경기성장세 둔화,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4% 증가하는데 그쳤음.
  - 실업률의 경우 1월 계절효과 등으로 4.1%를 나타냄.

표 I-6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총취업자(만 명)	2,507	2,491	2,579	2,593	2,577	2,560	2,527	2,590
(증가율)	(1.6)	(3.0)	(1.8)	(2.0)	(1.7)	(2.1)	(1.4)	(0.8)
고용률	59.5	58.8	60.8	60.9	60.4	60.2	59.0	60.3
실업률	3.1	4.0	3.7	3.3	3.2	3.5	4.1	3.9
경제활동인구(만 명)	2,587	2,595	2,677	2,681	2,662	2,654	2,636	2,695
(증가율)	(1.5)	(3.4)	(2.4)	(2.4)	(2.1)	(2.6)	(1.6)	(0.9)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2014년보다 0.5%p 하락한 1.8%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률은 전년대비 0.6%p 하락한 60.0%를, 실업률의 경우 전년대비 0.2%p 상승한 3.7%를 나타낼 전망이다.
- 인구비중이 높은 52~6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여성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및 청년 및 여성고용 활성화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됨.
- 그러나 성장 부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증가 둔화, 지난 2년간 고용 확대에 대한 기저효과는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 수출 둔화 및 소비 부진 지속에 따른 재고율 증가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여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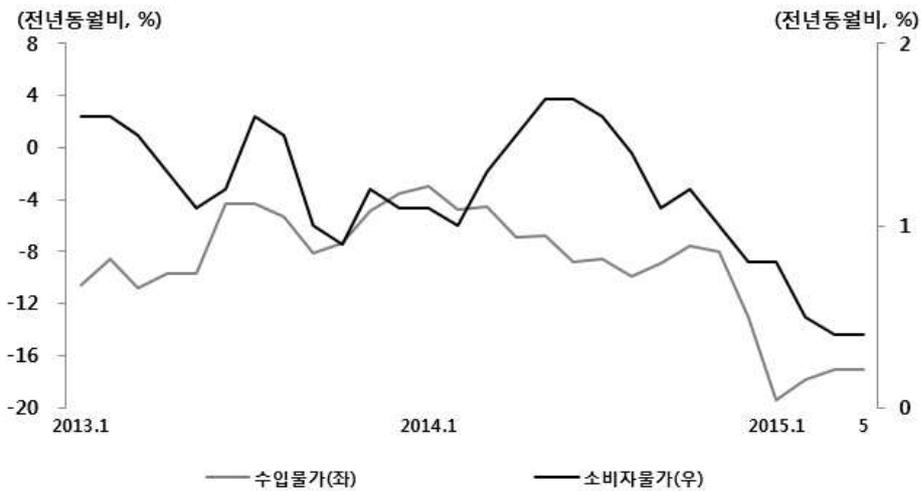
-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2013년과 동일한 1.3%를 나타냄.
- 2015년 1/4분기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과 도시가스 요금 인하<sup>21)</sup>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6%를 기록함.
- 그러나 농산물 및 식품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는 수요측면보다는 원자재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측면에 기인함.

21) 2015년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1% 인하되었음.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요금 인상 이외는 뚜렷한 물가 상승 요인이 없어 2014년 1.3%보다 0.4%p 하락한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원화 강세,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세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은 크지 않음.
- 또한 2015년 중 내수회복이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하반기부터 엘리뇨 현상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I-9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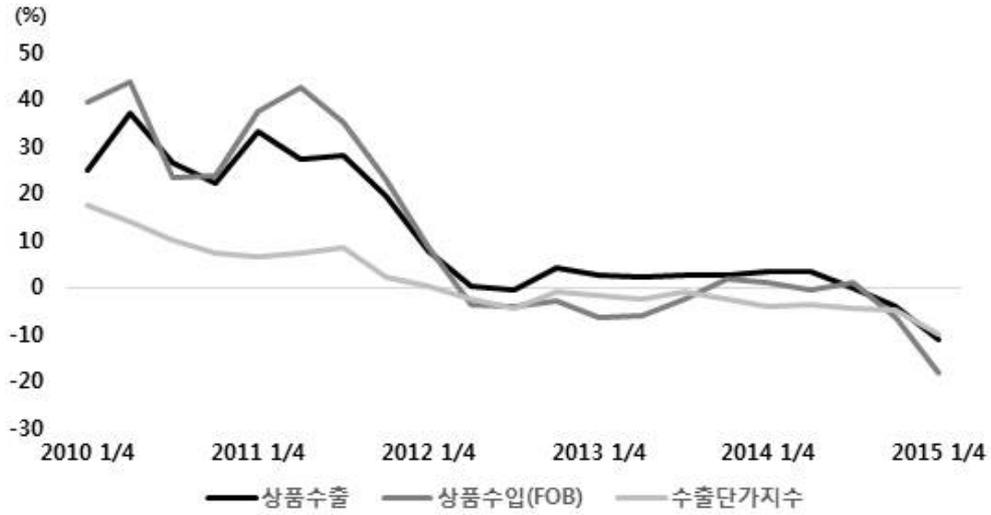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 〈대외거래〉

- 2014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2013년 대비 80억 7,000만 달러 증가한 892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4분기에도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23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상품수지는 원화 강세 및 글로벌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내수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2013년 대비 99억 1,000만 달러 증가한 926억 9,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2015년 1/4분기 상품수지는 원화 강세와 내수부진 지속으로 인한 상품수입 감소 심화로 흑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75억 1,000만 달러 확대된 252억 6,000만 달러를 나타냄.
- 2015년 대외거래는 원화 강세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상품수출이 감소할 것이나 내수부진 지속으로 상품수입 감소가 더 클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전년대비 87억 8,000만 달러 증가한 98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 상품수출은 선진국 수입 정체,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 정책 추진, 원화 강세 등으로 2014년 대비 8.3% 감소한 5,7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상품수입은 민간수요 부진 및 제한적인 설비투자 회복세,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12.0% 감소한 4,650억 달러를 나타낼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대비 123억 1,000만 달러 증가한 1,0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10** 상품수출 및 상품수입, 수출금액지수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채원영 연구원)

### 3. 국내금융시장

#### 〈금리〉

- 2013년 5월 이후 2.5%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 및 6월 네 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현재 1.50%임.
  - 한국은행은 신흥국 성장세 약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그리스 채무 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 금리 하방리스크를 고려하여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함.
  
- 2015년 들어 국채(3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미 연준 금리 인상 시점 지연 전망, 주요국 통화 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1~5월 평균 1.9%를 기록함.
  -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국채(3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음.
    - 2015년 5월 국채(3년)금리가 4월 평균 금리(1.74%)보다 14bp 상승하며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사라짐.
  -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회사채(3년, AA-) 수익률이 국채(3년)금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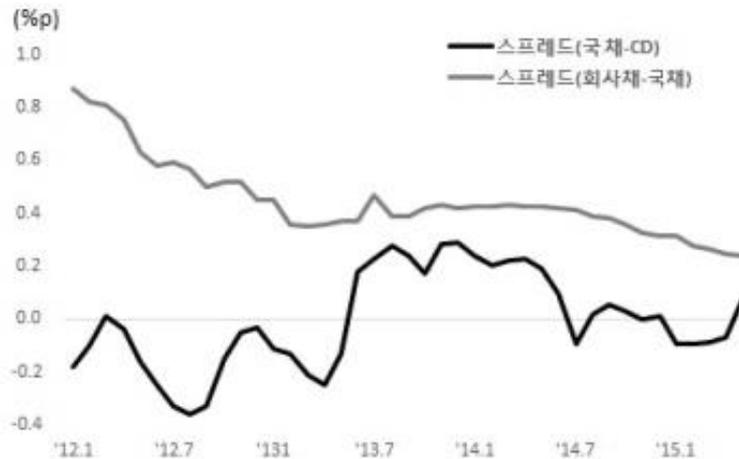
**표 I-7 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10월	11월	12월	2015. 1월	2월	3월	4월	5월
CD(91일)	2.21	2.14	2.13	2.13	2.12	1.95	1.81	1.80
국채(3년)	2.24	2.14	2.14	2.04	2.02	1.87	1.74	1.88
회사채(3년, AA-)	2.60	2.47	2.46	2.36	2.30	2.13	1.99	2.12
스프레드(국채-CD)	0.03	0.00	0.01	-0.09	-0.10	-0.09	-0.07	0.08
스프레드(회사채-국채)	0.36	0.33	0.32	0.32	0.28	0.26	0.25	0.24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1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국채(3년) 금리는 6월 기준금리가 인하 및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 국내 국채(3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동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최근 들어 미국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다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채와 미국 국채 간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음.
- 해외투자은행들은 2015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4%, 우리나라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2.5%, 1.9%로 전망함.
- 해외투자은행들은 하반기 미국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에 대하여 1~5월 평균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채 3년물 금리는 1~5월 평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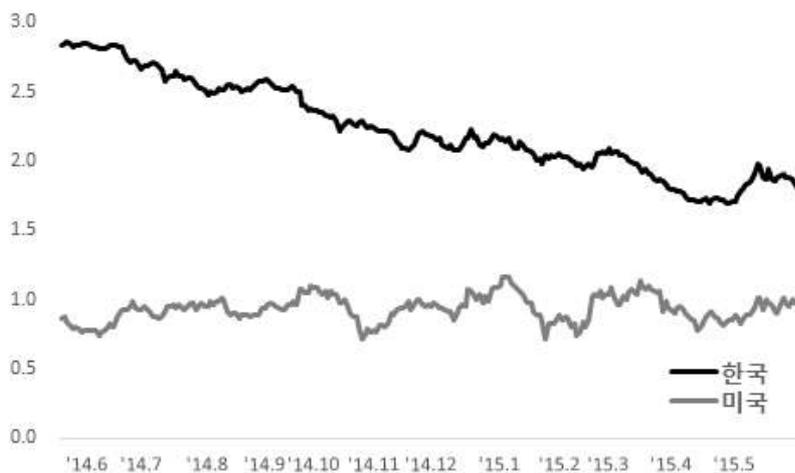
**표 I-8** 한국 및 미국 국채(3년) 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10월	11월	12월	2015. 1월	2월	3월	4월	5월
국채(3년)	2.24	2.14	2.14	2.04	2.02	1.86	1.74	1.88
미국국채(3년)	0.86	0.95	1.05	0.89	0.98	1.01	0.86	0.97
국채-미국국채	1.38	1.19	1.09	1.15	1.04	0.86	0.88	0.91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I-12** 한국 및 미국 국채(3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표 I-9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00	2.43	2.33	2.52	1.90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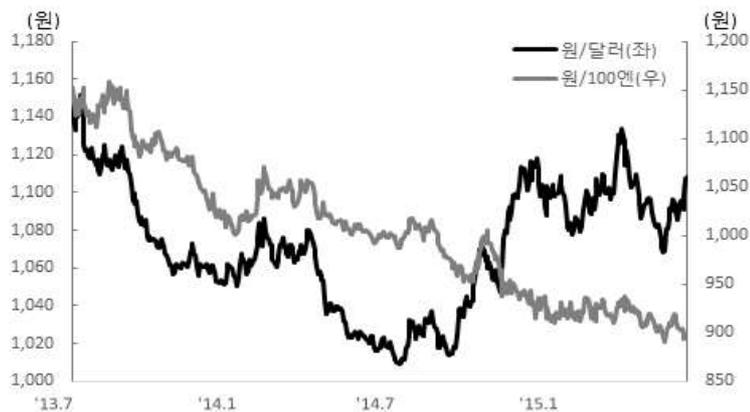
주: 2015년 하반기 투자은행에 대한 블룸버그 가중 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말에서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환율〉

- 2015년 5월까지 달러화는 미국의 견실한 회복세 지속,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외국인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했으며, 2015년 5월 말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96원이었음.
- 원/엔 환율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일본 자금의 해외 투자 증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 1~5월 평균 원/엔 환율은 917원임.

그림 I-1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I-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Barclays	1,095.95	1,120.00	119.50	121.00	1.12	0.99
Morgan Stanley		1,162.50		122.50		1.05
UBS		1,025.00		121.00		1.10
Citi		1,142.00		128.50		1.05
JP Morgan		1,080.00		122.50		1.06
HSBC		1,125.00		122.50		1.05

주: 2015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은 5월 말~6월 초 기준 전망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201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4년 1,053원에서 67원 상승한 1,120원으로 예상됨.

- 2015년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5년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미국 경기 회복을 예측하며 연말까지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실질실효환율은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해 다소 절상될 수 있음.

표 I-11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구분	2013	2014	2015(F)					
			연간		1~5월		하반기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실제치	기존 전망	수정 전망
회사채(AA-) 수익률	3.2	3.0	3.0	2.4	2.9	2.2	3.1	2.6
국채3년 수익률	2.8	2.6	2.6	2.0	2.5	1.9	2.7	2.1
원/달러 환율	1,095	1,053	1,040	1,120	1,050	1,096	1,030	1,144

주: 기간 평균값.

(이해량 연구원)

## Ⅱ. 보험시장

### 1. 주요 지표

- 2014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며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하였음.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등의 종목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성장세에 힘입어 2013년 대비 1.9% 소폭 증가함.
  -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8.3% 증가함.
- 2015년에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4년에 이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며 7.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연금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7.9%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견조한 성장과 퇴직연금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sup>1)</sup>		2014 <sup>2)</sup>		2015(F) <sup>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생명보험	77.2	-8.0	110.6	1.9	119.4	7.9	5.4
손해보험	53.8	4.2	76.6	8.3	81.9	7.0	4.8
전체	131.0	-3.4	187.2	4.4	201.3	7.5	5.2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2년 4~12월) 대비로 산출함.

2) 2014는 2014년 1~12월까지 실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2013년 1~12월) 대비로 산출함.

3) 2015(F)는 2015년 1~12월까지 실적 기준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 2015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sup>22)</sup>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보다 0.4%p 높은 13.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4년보다 0.3%p 상승한 7.7%, 손해보험 침투도는 0.1%p 상승한 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II-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sup>(2),3)</sup>	2014 <sup>(2),4)</sup>	2015(F) <sup>(2),4)</sup>
생명보험	6.5	8.3	7.1	7.4	7.7
손해보험	4.5	4.9	4.9	5.2	5.3
전체	11.0	13.3	12.0	12.6	13.0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2014, 2015(F)는 각각 2014년 1~12월, 2015년 1~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22)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5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sup>23)</sup> 역시 2014년에 비해 26만 4,000원이 늘어난 397만 6,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5만 8,000원, 161만 8,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I-3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1	FY2012	FY2013 <sup>3),4)</sup>	2014	2015(F) <sup>5)</sup>
생명보험	1,765	2,306	1,538(2,162)	2,193	2,358
손해보험	1,225	1,371	1,070(1,408)	1,519	1,618
전체	2,989	3,677	2,608(3,570)	3,712	3,976

-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괄호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5) 2015(F)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량 연구원)

23)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 2.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개요

■ 2014년<sup>24)</sup>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이 감소하였으나 단체보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남.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FY2012 세제개편<sup>25)</sup> 기저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수입보험료가 1.7% 줄어듦.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40.9% 증가함.
  - 일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45.8% 증가함.
  - 2014년 퇴직연금 적립금 전체 유입액은 34.3% 늘어났으며, 은행 6.8%, 생명보험 49.3%, 손해보험 22.0%, 증권 158.5% 증가하면서 보험업권과 증권업권이 퇴직연금시장 성장을 주도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비율의 단계적 상향<sup>26)</sup>과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sup>27)</sup>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업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급증함.

24)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간은 2014년 1~12월임.

25) 2012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시행 전 일반 저축성보험 가입 수요가 급증하였음.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 ~ 2013. 12. 31까지 60%, 2014. 1. 1 ~ 2015. 12. 31까지 70%, 2016. 11 ~ 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27)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제고,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등이 주 내용임.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 지속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7.9%의 양호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이 지속되면서 생존보장이 강화된 선지급형 종신보험, 간편 심사 건강보험 등의 출시로 보장성보험 성장이 전망되나 성장률은 완만할 것으로 보임.
  - 제8회 경험생명표 적용이라는 가격인하 요인과 예정이율 인하라는 가격인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상대적 금리 경쟁력 유지, 비과세 혜택 부각 등으로 연금보험 등의 가입 인센티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 보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연금보험 수요는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나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sup>28)</sup> 세제혜택 축소 및 낮은 투자수익률이 저축성 보험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단체보험 중 일반 단체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퇴직 연금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추가납입 증대로 대폭 성장이 전망됨.
-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5.4%로 전망 하였으나 제도적인 요인으로 퇴직연금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여 전망치를 7.9%로 상향 조정함.

28) 2013년 소득세법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

표 II-4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개인	979,382	-1.7	1,032,758	5.5	4.8
단체	126,371	40.9	160,855	27.3	10.8
합계	1,105,753	1.9	1,193,613	7.9	5.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개인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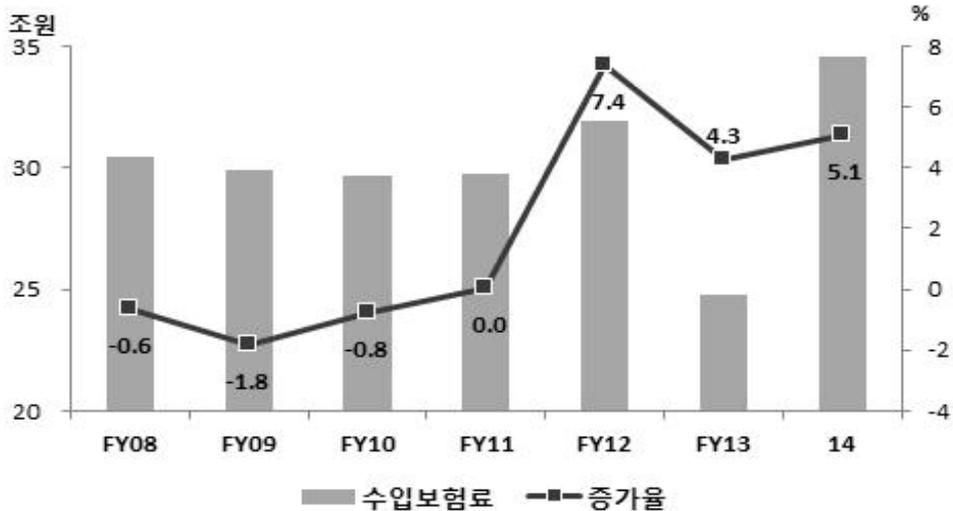
〈보장성보험<sup>29)</sup>〉

■ 2014년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유지율도 안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5.1% 성장을 기록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7 이후 5년만인 FY2012 플러스 성장하였고,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5.7%, 4.2%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FY2013과 비교하였을 때 종신보험이 크게 상승함.
  - FY2013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3%, 4.8%임.
  - 2013년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으로 편중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하여 보장성보험 마케팅을 강화해 온 결과임.

29)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그림 II-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보장성보험은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와 가격인상 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생존보장을 강화한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가입이 용이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등 신상품 개발과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험가격 인상 전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8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표준이율 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예상됨.
-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나는 점도 보장성 보험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해약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FY2008 11.4% → FY2012 9.3% → FY2014 8.4%)것은 수입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당초 2015년 보장성보험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이를 6.7%로 상향 조정함.
  - 다만 경제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과 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장성보험 가격인상 요인이 보장성보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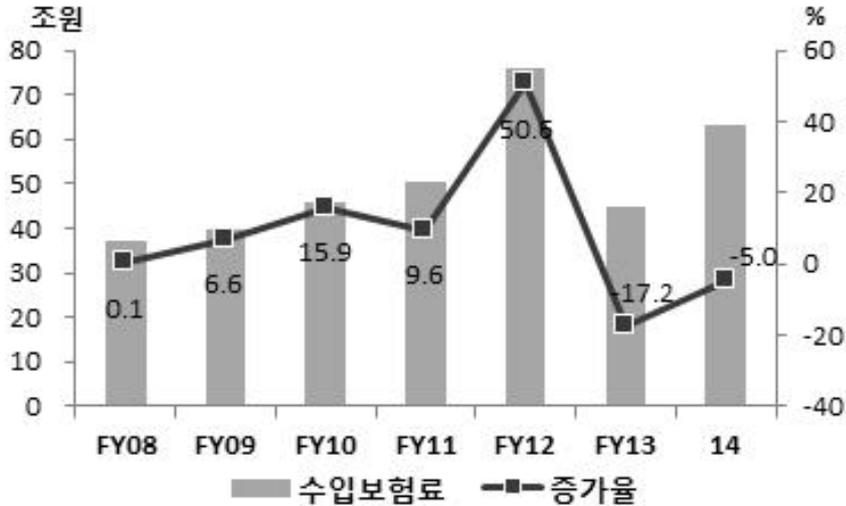
#### 〈저축성보험<sup>30)</sup>〉

- 2014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년동기대비 5.0% 줄어듦.
  - 2014년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7.6% 축소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법개정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FY2013 32.0% 감소한 바 있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FY2013에 비해 감소율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3.5% 줄어듦.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sup>31)</sup>와 세제혜택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FY2013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30)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31) 2012년 중반 이후 시중금리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공시기준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높은 수준이 최근까지 유지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지속되었음.

그림 II-2 저축성보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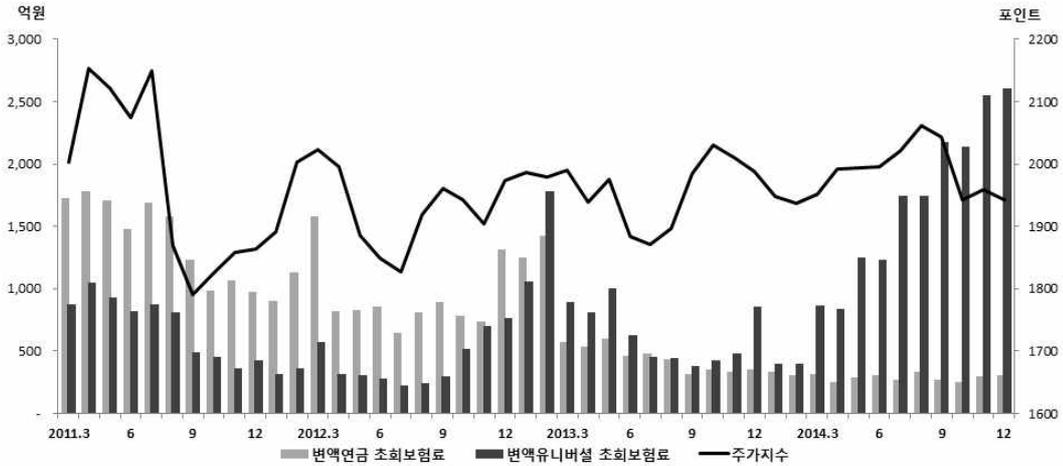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에는 주가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sup>32)</sup> 수입 보험료는 3.1% 감소함.
  - 2014년에 종합주가지수는 2,000p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0p 도달 후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 변액저축성보험 성장이 하락함.
  - 그러나 저금리 지속에 따라 일반 저축성보험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저보장 변액보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납입편의성이 높은 변액유니버설 상품의 경우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2)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임.

그림 II-3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 2015년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상대적인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부각으로 인해 4.7% 증가가 전망됨.

- 생존보험 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세제혜택 축소로 매력도가 떨어졌으나, 저금리에 따른 타 금융상품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초반 상대적 고금리와 비과세혜택으로 연금보험의 신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금리 지속에 따라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 하락하고 있어 신계약 경쟁력은 일부 약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4월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 조치 이후 기존 연금저축 계약이 타 금융권으로 이탈하고 있어 연금저축 계속보험료 감소도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도 2015년 들어 저금리가 심화됨에 따라 금리 역마진 부담을 우려한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지양하고 있어 신계약이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성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2015년 들어 주가지수가 2100p를 상회하면서 최저보장과 함께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실적개선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설 위주로 성장이 예상되나 변액연금의 실적부진으로 전체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4년 10월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 소멸, 저금리 환경,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등으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정이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를 0.3%p 소폭 하향 조정함.
  - 국내 경제회복 부진에 따라 기준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저축성보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II-5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보장성	346,027	5.1	369,325	6.7	4.5
저축성	633,355	-5.0	663,434	4.7	5.0
개인계	979,382	-1.7	1,032,758	5.5	4.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단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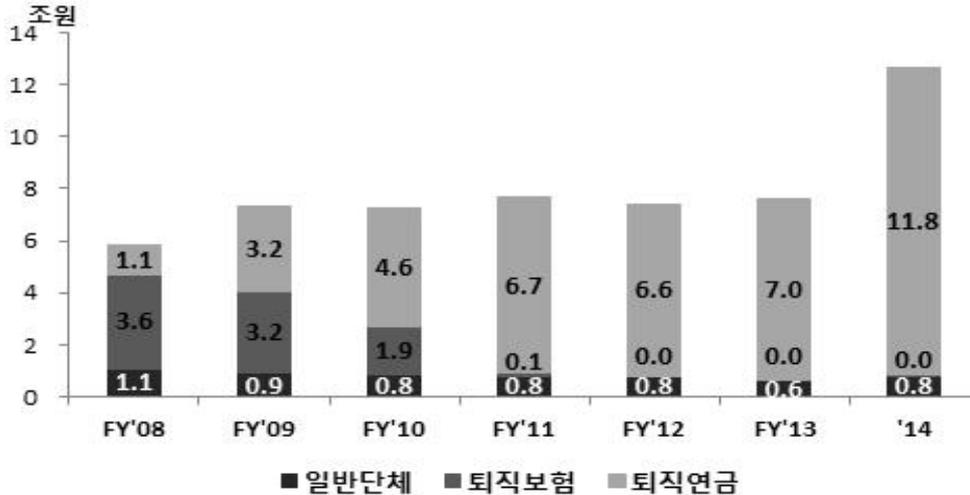
■ 2014년 단체보험은 FY2013에 이어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0.9% 성장하였음.

- 2014년 8월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수입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45.8% 성장함.
  - 2014년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유입액 기준으로 2014년 34.3% 성장하였으며, 은행 6.8%, 생명보험 49.3%, 손해보험 22.0%, 증권 158.8% 성장함으로써 보험업과 증권업의 시장성장률이 두드러짐.
  - 생명보험 퇴직연금시장 확대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급격한 성장에도 기인함.
  - 퇴직연금시장 성장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sup>33)</sup>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가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이 상향조정<sup>34)</sup>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4년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함으로써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33) 감독당국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2022년에는 전면의무화할 것임을 밝힘.

3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 ~ 2013. 12. 31까지 60%, 2014. 1. 1 ~ 2015. 12. 31까지 70%, 2016. 11 ~ 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그림 II-4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단체보험은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면서 2013년 31.0%, 2014년 45.8%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사적연금 가입을 늘리고자 하는 감독 당국의 정책에 힘입어 보험업권 퇴직연금 가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2016년 대기업 의무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수요 증가도 예측해 볼 수 있음.
  - 특히 2014년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수 기준)은 78.8%로 2013년 75.0%보다 3.8%p 증가<sup>35)</sup>하여 대기업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함.
  -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적립비율을 2015년 말까지 70%로 상향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계약의 계속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5)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2015. 2. 12), 2014년 12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게시.

- 한편 퇴직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나 보험업권 시장으로의 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1월 납입분부터 300만 원까지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1/4분기 퇴직연금 개인형IRP 추가적립금이 전분기 대비 186.7% 증가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업권은 56.0% 증가에 그침.
- 당초 퇴직연금시장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수혜로 확대되면서 전체 단체보험이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보험업권 퇴직연금 시장이 강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16.5%p 상향 조정함.
  - 퇴직연금시장 성장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가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계적으로 2016년 대기업의 의무가입을 앞두고 사전 수요가 있을 경우,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장될 것임.
  - 다만 대형 금융기관에 가입이 집중되어있는 특성상 보험업권의 경우, 특정 보험회사가 보험업권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어 보험업권 퇴직연금 시장 성장은 전체 퇴직연금시장 성장과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음.

표 II-6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단체	126,371	40.9	160,855	27.3	1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수석담당역, 이해량 연구원)

### 3. 손해보험

#### 〈손해보험 개요〉

- 2014년<sup>36)</sup> 손해보험<sup>37)</sup>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전체 전년대비 8.3%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6.1% 증가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계속된 신규수요 감소로 성장 여력이 약화된 데다 수수료 체계변경<sup>38)</sup>으로 대면채널의 판매유인도 줄어들어 3.2% 감소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sup>39)</sup> 상승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증가로 78.9% 늘어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 추세 등에 힘입어 5.2%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소폭에 그침에 따라 모든 종목이 저성장을 나타냈으며, 전체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0.3% 감소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개인연금과 일반손해보험이 저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어 7.0% 증가가 전망됨.

36)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이며,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임.

37)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38)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참조.

3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4. 1. 1 ~ 2015. 12. 31까지 70%로 상향 조정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에 힘입은 장기상해 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세와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으로 6.6%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계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 되어 있어 1.5%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 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26.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 되고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4.7%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의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대부분 종목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1.6%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말 퇴직연금 실적 급증과 기존 전망이 제시된 이후의 원수보험료 실적치를 고려하여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7.0%로 2.2%p 상향 조정함.

표 II-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sup>2)</sup>		2014 <sup>3)</sup>		2015(F) <sup>1),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손보	401,896	17.7	315,478	5.6	444,037	6.1	473,474	6.6	5.8
상해·질병	166,786	14.2	142,314	16.1	213,233	14.3	239,602	12.4	10.8
저축성	124,559	27.8	89,300	-4.3	117,617	-2.4	117,245	-0.3	1.3
기타 <sup>4)</sup>	110,551	12.9	83,864	1.1	113,186	1.5	116,627	3.0	1.1
연금부문	74,337	11.1	62,991	6.3	104,809	34.2	121,080	15.5	2.9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090	-3.2	40,474	-1.5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63,718	78.9	80,606	26.5	5.6
자동차	128,416	-1.5	97,435	0.4	135,484	5.2	141,866	4.7	3.7
일반손보	80,773	13.9	61,679	1.5	81,424	-0.3	82,728	1.6	2.8
화재	3,293	25.0	2,413	-2.9	3,106	-3.6	3,010	-3.1	-0.5
해상	8,230	-5.4	6,016	-10.7	7,343	-2.2	7,588	3.3	2.6
보증	15,816	4.2	11,238	-4.8	15,152	-0.6	15,230	0.5	2.0
특종 <sup>5)</sup>	53,433	20.4	42,012	5.6	55,823	0.3	56,900	1.9	3.3
전체	685,422	12.4	537,582	4.2	765,754	8.3	819,148	7.0	4.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3)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4)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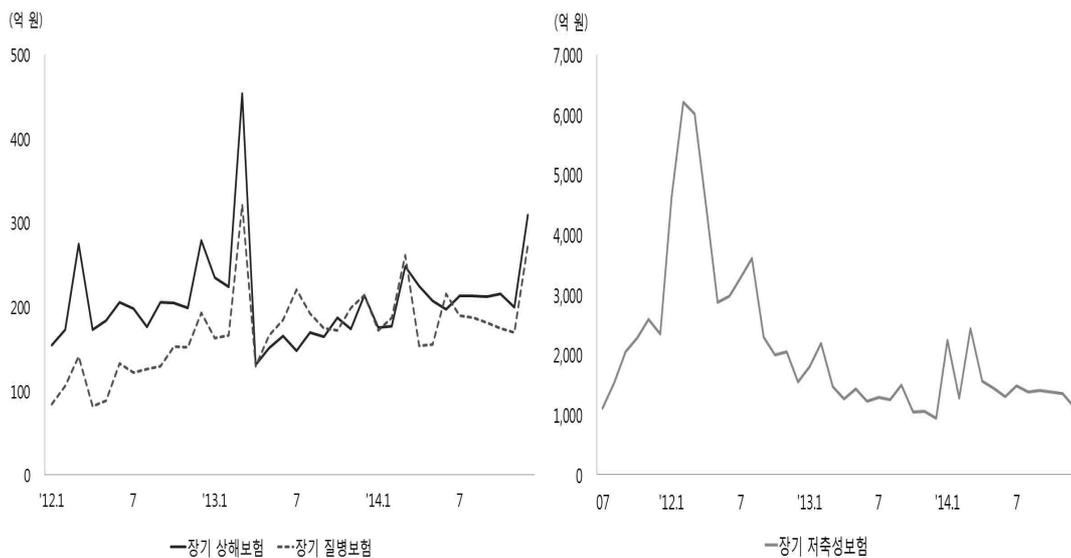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손해보험〉

-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대비 6.1% 증가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10.8%, 18.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화로 초회보험료 변동성이 크게 확대<sup>40)</sup>된 이후 완만한 초회보험료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임.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4% 감소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2012년까지 저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인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도 존재하여 저축성보험 관련 상품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경쟁 심화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규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 2014년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음.

**그림 II-5** 장기상해, 질병, 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0) 2013년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수요가 급감함.

■ 2015년에는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6.6% 증가가 전망됨.

● 장기상해·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지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간병보험 시장 확대 등과 같은 시장 확대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12.4% 증가가 전망됨.

- 단,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신규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년 6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sup>41)</sup>과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sup>42)</sup>과 같은 제도 변화는 신규수요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부터 계속된 신규수요 감소세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로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2015년에도 초회보험료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의 저축 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기존 전망이 제시된 이후의 초회보험료 추세 변화와 제도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5.8%에서 6.6%로 0.8%p 상향 조정함.

41) 보험료가 인상되면 높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신규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나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으며,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할 것으로 보임.

42) 자기부담금이 상향 조정 이전에는 상향되기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신규수요가 급감할 것임.

표 II-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sup>2)</sup>		2014 <sup>3)</sup>		2015(F) <sup>1),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손보	401,896	17.7	315,478	5.6	444,037	6.1	473,474	6.6	5.8
상해·질병	166,786	14.2	142,314	16.1	213,233	14.3	239,602	12.4	10.8
저축성	124,559	27.8	89,300	-4.3	117,617	-2.4	117,245	-0.3	1.3
기타 <sup>4)</sup>	110,551	12.9	83,864	1.1	113,186	1.5	116,627	3.0	1.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3)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4)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4년 개인연금<sup>43)</sup>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2% 줄어든 4조 1,090억 원을 기록함.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2011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요가 늘어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신규수요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또한, 2013년 개인연금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대면채널의 개인연금 판매 유인이 줄어들었음.
  - 2013년부터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예정신계약비가 월납보험료 대비 생명보험회사 300%, 손해보험회사 500%에서 생·손보 모두 300%로 인하됨.

43)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 말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78.9% 증가한 6조 3,718억 원을 기록함.

-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이 증가하였으며,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승과 운영수익률 하락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립부담 확대가 원수보험료 호조세에 기여함.

그림 II-6 개인연금 월별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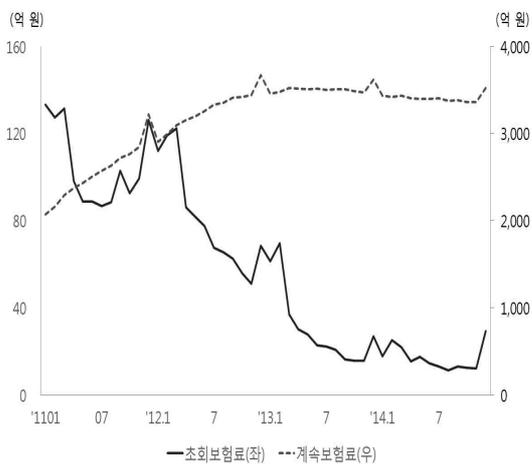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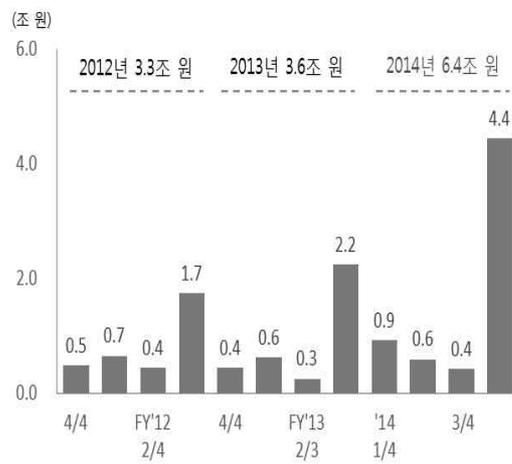


그림 II-7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로 1.5% 감소가 전망됨.

-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계속되어 성장 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을 통하여 신규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금리로 개인연금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연금 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sup>44)</sup>으로 금융권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44) 금감원 보도자료(2015. 4. 21) 참조.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2014년 말 기대했던 만큼의 개인연금 초회보험료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0.2%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 2015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정부의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6.5% 증가가 예상됨.

-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 확정급여형 최소적립 비율 상향 조정, 추가 납입이 가능한 IRP 시장 확대 등이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12월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실적치가 계열사와의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2015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5.6%에서 26.5%로 20.9%p 상향 조정함.

표 II-9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sup>2)</sup>		2014 <sup>3)</sup>		2015(F) <sup>1),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연금부문	74,337	11.1	62,991	6.3	104,809	34.2	121,080	15.5	2.9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090	-3.2	40,474	-1.5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63,718	78.9	80,606	26.5	5.6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3)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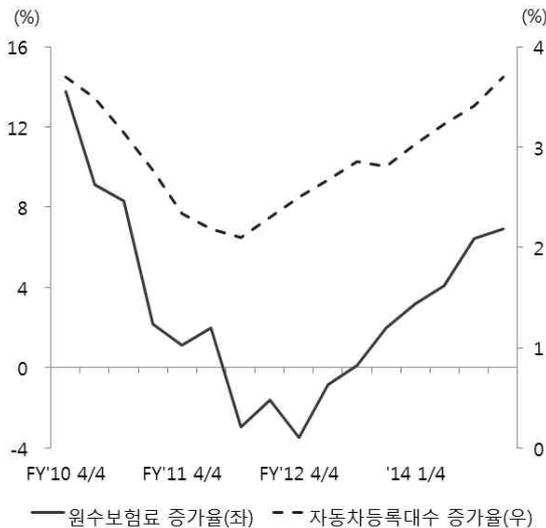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상승, 요율 인상<sup>45)</sup>, 대물담보와 자차담보 가입 금액 확대 추세로 5.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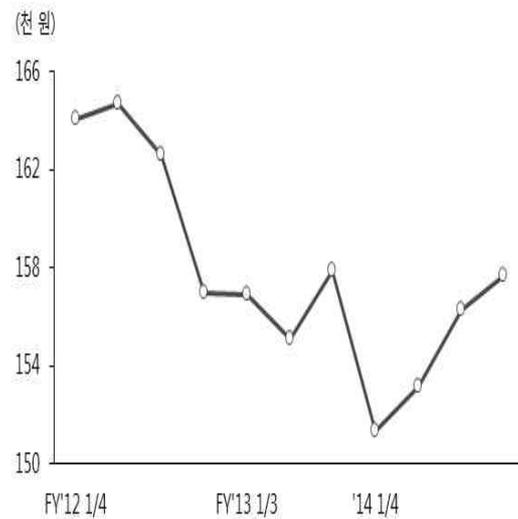
-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인하<sup>46)</sup>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2014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요율이 인상되기 시작한 데다 수입차와 고가 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대물담보와 자차담보 가입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2014년 1/4분기부터 해당 경과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임.

그림 II-8 원수보험료/등록 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그림 II-9 해당 경과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5) 2014년 4월부터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도 인상됨.

46) 2014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13년 2.1%보다 크게 상승한 16.6%를 나타냄.

■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 자동차 등록 대수의 완만한 증가,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등으로 4.7%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될 것임.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완만한 증가세와 수입차 및 고가 자동차 증가세가 예상되어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5년에도 온라인 판매 확대<sup>47)</sup>와 주행거리 연동특약 상품 판매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수보험료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4년 대물담보 가입확대 추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을 3.7%에서 4.7%로 상향 조정함.

표 II-1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sup>2)</sup>		2014 <sup>3)</sup>		2015(F) <sup>1),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자동차	128,416	-1.5	97,435	0.4	135,484	5.2	141,866	4.7	3.7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3)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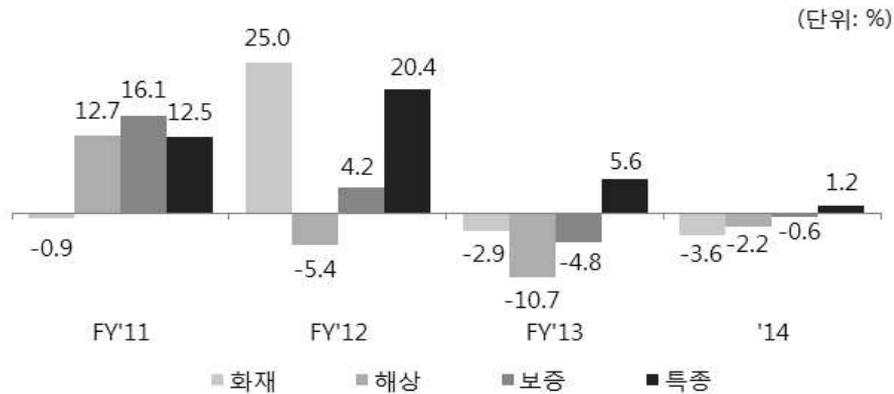
47) 2014년 온라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약 3조 원을 나타냈으며, 개인용 자동차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2013년 36.0%에서 2014년 36.9%로 소폭 상승하였음(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3)).

## 〈일반손해보험〉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 보험 저성장으로 0.3% 감소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 지속과 다른 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sup>48)</sup> 등으로 3.6%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선박보험과 적하 보험 부진으로 2.2% 감소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 요율 조정, 제도 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둔화 등으로 0.6% 감소함.
  -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와 10월 「이동통신단말유통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sup>49)</sup>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위축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증가세 둔화로 1.2% 증가하는 데 그침.

그림 II-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8)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형보험 등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들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이와 같은 종목들로 분산되고 있음.

49)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10. 30) 참조.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1.6%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확대 이외의 신규수요 확대 요인을 찾기 어려우며, 요율 조정과 다른 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3.1%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따른 해운업과 조선업 침체로 저성장이 예상되나, 2012년 이후 계속된 원수보험료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3.3%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부진과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 상품 요율 인하가 계속되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영향으로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보여 0.5%의 저성장이 전망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책임보험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종합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이 저성장하여 1.9%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기업의 단체 상해보험 수요를 중심으로 상해보험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종합보험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이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일부 종목의 2014년 원수보험료 실적이 경기둔화 등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제회복세 지연 등으로 2015년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1.6%로 하향 조정함.

표 II-11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		FY2013 <sup>2)</sup>		2014 <sup>3)</sup>		2015(F) <sup>1),3)</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일반손보	80,773	13.9	61,679	1.5	81,424	-0.3	82,728	1.6	2.8
화재	3,293	25.0	2,413	-2.9	3,106	-3.6	3,010	-3.1	-0.5
해상	8,230	-5.4	6,016	-10.7	7,343	-2.2	7,588	3.3	2.6
보증	15,816	4.2	11,238	-4.8	15,152	-0.6	15,230	0.5	2.0
특종 <sup>4)</sup>	53,433	20.4	42,012	5.6	55,823	0.3	56,900	1.9	3.3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3)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 저자약력

### 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경제·금융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해외경제 이아름(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량(연구원)

### 보험산업

보험총괄 김석영(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수석담당역)

이해량(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 CEO Report 2015-02

###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